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성당

2005년 4월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등

1. 시작 성가: 130번(예수 부활하셨네)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요한 20,19-31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공지사항(예비신자 초대하기)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129번(알렐루야 노래하자)

MEMO

[교회에 관한 교의현장]

* 교회란 무엇인가? *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해 함께 모인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1. 교회의 신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하고 온 인류와 일치하는 도구적 표지(標識) 곧 성사(聖事)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구원자로 파견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강림의 날에 교회를 성화하기 위해 파견되신 성령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성령은 교회를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고 친교와 봉사로 일치시키신다.

또한 다양한 성서적 표상으로 교회를 묘사한다. 교회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공동체인 볼 수 있는 조직이며, 이것이 가톨릭교회 안에 존재하고, 교회 밖에도 여러 가지 성화와 진리의 요소들이 많이 발견된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말을 빌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와 세상의 박해 중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

2.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아 성화하신다.

그리스도는 이 백성의 머리이시며 그의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한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司祭職)에 참여하고 성사를 통해 거룩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예언직(豫言職)에 참여하고 성령의 은사로 은총을 입는다.

나그넷길에 있는 이 가톨릭교회는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예비자들도 이 교회에 속한다.

교회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완전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일치를 보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결합되어 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다. 유대인, 회교도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기된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청중을 신앙에로 이끌어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한다.

3. 평신도

평신도는 성세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참여한다. 평신도의 특별한 성소는 현세적 일에 종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다.

평신도 사도직은 교회의 구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평신도는 그리스도께 봉헌된 자들이며 성령으로 기름발린 자들이다. 평신도는 신앙의 선포자로 부름 받았고, 이를 통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 사목자들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책임과 품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평신도 각자는 세상에 대해 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

<성서묵상>

주제 :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요한 20,19-31>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 문을 닫아걸고 있을 때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평화와 기쁨을 선사하신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참 평화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주시고 세상으로 그들을 파견하시며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런데 토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고 직접적인 확인을 요구한다.

예수께서는 부활의 신비를 인간의 사고능력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셨기에 여드레 후에 다시 나타나셨다.

“네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하시며 토마의 요구에 응답하신다. 그러자 토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가장 완전한 신앙고백을 하게 된다.

자신의 요구대로 예수의 상처를 손으로 만져본 결과가 아닌 신앙의 외침이었다.

토마가 아직도 상처가 뚜렷이 남아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뵈고 고백했을 때 그는 인간이신 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토마는 보고 믿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마지막 말씀으로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축복을 내리신다.

이 책을 쓴 목적도 읽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려함이고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리사 때 빵과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할까?”

“우리가 정말로 육신을 지닌 채 부활할 수 있을까?” 등등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불행리한 것이 많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직접보고 확인하면 믿을 수 있겠다고 여기는 경우는 비단 토마 사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아이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어머니가 아이들의 시야를 잠시 벗어나 있으면 그 아이는 어머니가 갑자기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때 어른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듯하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든, 땅에 묻든 내 눈 앞에서 사라지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 있는 듯하다. 이렇듯 눈 중심의 사고방식은 한편으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듯하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랑, 우정, 믿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생활 나누기>

1.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 기이한 기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곳을 찾아다니며 그러한 것에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는지요.
3. 성체께 대한 믿음과 감사함을 갖고 영성체를 하고 계신지요.

[겨자씨]

작은 불꽃의 힘

깃덩이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연장들이 그 깃덩이를 부수려고

각가지 노력을 해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도끼가 나서서 “내가 저 깃덩이를 부수어 놓고야 말겠다.” 고 하면서

깃덩이를 킁껏 내리쳤어요.

하지만 도끼의 날만 상했을 뿐

깃덩이에게는 아무 상처도 낼 수 없었습니다.

톱이 나서서 날카로운 이빨로 깃덩이를 핏퐁어 보았지만

오리려 자기의 톱날만 망가진 뿐이었어요.

망치가 돌을 비웃으며 “비켜라, 내가 해 보겠다”며 나서서

있는 힘을 다해 깃덩이를 머리로 들이받았지만

역시 망치의 머리만 깨졌을 뿐

깃덩이는 꺾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끼와 톱과 망치는 몹시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작은 불꽃이 나서며

“어디 내가 한 번 해볼까?”라고 했을 때,

셋은 “우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조그만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비웃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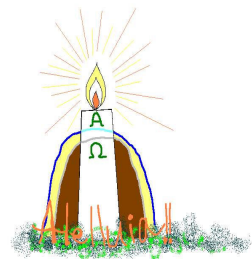
그러나 불꽃은

깃덩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면서

깃덩이가 눈물을 푹푹 흘릴 때까지 쉬지 않고 불꽃을 내 쏘았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깃덩이를 다 녹여 버렸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크고 작은 모든 것,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